

영유아 권리존중 상호작용의 비법





발간사

「영유아 권리존중 상호작용의 비법」은 2021년 개정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의 후속으로 발간된 자료입니다.

영유아 권리존중 상호작용의 비법에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 I 장 아동학대의 예방의 권리존중 지도를 위한 상호작용 방법인 ‘경.공.한.대.기’(경청하기, 공감하기, 한계설정, 대안제시, 기다리기)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영유아 권리존중 상호작용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상황에서의 예시를 안내함으로써 일상생활 속에서 ‘경.공.한.대.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안내하였습니다.

부적절한 상호작용을 권리존중 상호작용으로 바꿀 수 있도록 스스로 점검하고 실천한다면, 우리 아이들도 보다 편안하고 따뜻한 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환경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 서로의 권리를 인정하는 사회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권리는 멈추지 않고 순환됩니다.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때 자신의 권리도 존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유아를 보육하는 교사와 영유아의 권리가 동시에 존중되고, 권리존중 문화가 확산되는데 이 자료가 귀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과 매일 매일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3년 12월

한국보육진흥원장 나성웅

CONTENTS

I. 영유아 권리존중 상호작용의 이해

1.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는 상호작용	8
1) 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	8
2) 교사의 영유아 권리 비존중	9
3) 권리존중과 비존중 상호작용의 차이	10
2. 영유아 권리존중 상호작용의 5가지 비법	12
1) 경청하기	12
2) 공감하기	13
3) 한계설정하기	14
4) 대안제시하기	15
5) 기다려주기	16





II. 영유아 권리존중 상호작용의 적용

1. 영아반에서의 권리존중 상호작용	19
1) 또래 간 갈등 상황에서 영아와의 상호작용	20
2) 개별적 요구를 가진 영아와의 상호작용	21
3) 방해 행동하는 영아와의 상호작용	22
2. 유아반에서의 권리존중 상호작용	23
1) 또래 간 갈등 상황에서 유아와의 상호작용	24
2) 약속을 지키지 않는 유아와의 상호작용	26
3) 방해 행동하는 유아와의 상호작용	27

III. 반복되는 문제행동 지원을 위한 권리존중 상호작용

1. 영유아 문제행동 지원의 원리	29
2. 영아의 문제행동 지원을 위한 상호작용 사례	30
1) 친구를 깨물어요 ①	30
2) 친구를 깨물어요 ②	32
3) 하루 종일 울고 보채요 ①	34
4) 하루 종일 울고 보채요 ②	38
3. 유아의 문제행동 지원을 위한 상호작용 사례	42
1) 친구를 따돌려요 ①	42
2) 친구를 따돌려요 ②	46
3) 작품을 무너뜨려요 ①	48
4) 작품을 무너뜨려요 ②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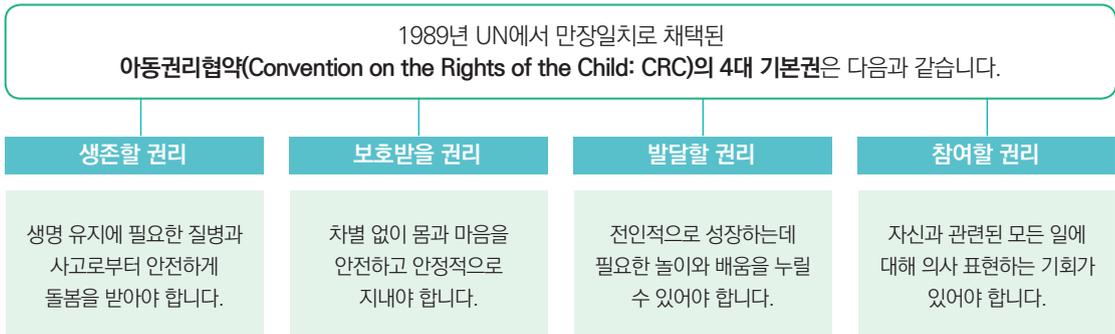
영유아 권리존중 상호작용의 이해

영유아 권리존중 상호작용의 이해

영유아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중 한 사람이며,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세계 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 영유아도 어른과 같이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사는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하며, 모든 영유아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차별 없이 지도해야 합니다.



- 영유아는 어린이집에서 교사, 또래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자신의 권리가 존중되듯 타인의 권리도 존중해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민주적인 교사와 함께 지내며 영유아들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 참된 리더의 권위는 구성원의 권리를 존중할 때 비로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영유아의 권리와 교사의 권리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동시에 실현됩니다. 영유아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교사의 권리 또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는 상호작용

1 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

교사가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은 영유아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영유아는 상황을 어른과 달리 지각합니다. 세상에 대한 경험의 양과 기회가 적기 때문에 어른들에게는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행동도 영유아들은 특별하게, 때로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반면 어른들에게는 수습하기 어려운 큰일이라고 여겨지는 행동이 영유아에게는 그냥 단순히 궁금해서 해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른들이 일을 훌륭히 완수하고 싶어 하듯이 영유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할 수만 있으면 잘하고 싶어 합니다(Greene. R., 2008¹⁾). 교사는 영유아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는 교사는 아래와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 영유아의 고유성을 인정합니다. 모든 영유아는 기질과 발달 특성이 달라서 선호하는 것도 다르고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기술도 저마다 다릅니다. 유별난 점을 영유아의 고유한 개성으로 인정해줍니다.
- 영유아가 친구들과 사이에서 존중받도록 배려합니다. 다른 친구들에게 영유아의 실수 행동이 비난받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줍니다. 영유아의 건강 상태를 항상 살피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줍니다.
- 영유아가 안정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늘 기분이 좋을 수는 없지만, 기분이 상한 이유에 공감하며 감정 조절을 독려하고 지원합니다.
- 영유아의 이름을 부르거나 말할 때 사랑하는 마음을 담습니다. 영유아의 이름은 그 자신을 상징하는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 영유아의 물건을 소중히 다룹니다. 영유아는 자신의 물건에 마음을 담기 때문에 물건을 거칠게 대하는 것은 영유아를 거칠게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 영유아의 경계를 존중해 줍니다. 영유아의 개인 공간(홀라후프 크기 정도)에 들어갈 때는 동의를 구합니다. “손잡아도 되니? 기저귀 갈아주려고 해. 준비됐니?”

1) Greene, R. (2008). Kids do well if they can, Phi Delta Kappan, 90(3), 160-167.

2 교사의 영유아 권리 비존중

• 영유아의 어린이집에 대한 경험은 생애 초기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생활에 처음 노출된다는 면에서 교사의 리더십이 영유아의 행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보육실에서 리더인 교사는 영유아들과 지내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를 겪습니다. 영유아들 간의 입장과 요구가 달라 갈등과 문제에 직면했을 때, 교사가 어떤 리더십을 보이는가에 따라 영유아의 권리존중의 여부가 달라집니다.



-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는 교사는 민주적인 문제해결의 모델이 되는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독재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교사는 영유아들에게 교사가 지시하는 것을 무조건 따르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개별적 요구를 무시하기 쉽습니다.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불응하는 영유아와 힘겨루기하다 보면 분노하기 쉽습니다.
- 영유아의 권리를 비존중하는 교사가 보이는 부적절한 상호작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무시	교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영유아의 요구를 일부러 못 들은 척하거나 수용하지 않고, 개별적인 요구는 못 들어준다면서 반 전체에 맞추라고 강요함
비난	영유아의 실수를 추궁하거나 일이 잘못된 원인과 책임을 영유아에게 돌리며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끼게 함
조롱	영유아의 미숙함을 다른 영유아들과 비교하며 비하하거나, 영유아의 행동에 대한 처벌 방법에 대해 다른 영유아들과 다름
거짓 협박	영유아의 행동을 통제하고자 기회를 박탈하거나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나쁜 일이 생긴다고 한다거나 원하는 대로 하면 무언가를 해주겠다고 강요함
차별	특정 영유아에게 유별난 호감을 표시하거나 비호감을 표시함. 발달이 늦은 영유아에게 다른 영유아와 비교하며 활동 참여 기회를 주지 않음
거친 접촉	영유아를 위압과 물리력으로 대하거나 영유아의 사물을 함부로 다루어 불쾌감을 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다면서 과도한 힘으로 거칠게 대하여 오히려 영유아에게 공포와 상처를 줌

3 권리 존중과 비존중 상호작용의 차이

- 유아들이 교사와 함께 집단 활동을 하고 있는데, OO이가 갑자기 혼자서 노래를 부릅니다. 교사는 OO이의 방해 행동을 처음엔 무시하려고 했는데, 주변의 유아들이 OO이의 노랫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교사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다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교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같은 상황에서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는 상호작용과 비존중하는 상호작용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는 상호작용



교사의 권리존중 상호작용은 교사와 또래들과의 관계에서 따뜻함을 느끼게 합니다. 교사의 마음과 영유아의 마음이 소통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래들도 친구 행동 이면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하는 기회가 됩니다. 영유아 자신도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대안 행동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는 상호작용은 아무도 비난받지 않으면서 바람직한 행동이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영유아의 권리를 비존중하는 상호작용



교사의 부주의한 지도는 교사와 또래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하게 합니다. 영유아는 교사가 자신을 싫어하거나 미워한다고 생각하기 쉽고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게 되며, 또래들도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영유아의 권리를 비존중하는 상호작용은 영유아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유대감 형성에 어려움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권리존중 상호작용의 5가지 비법

1 경청하기

- 영유아의 몸과 마음이 불편한 이유를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살펴야 합니다.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는 교사는 영유아가 소통하려는 바가 무엇인지 토로하는 정서에 먼저 주의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 영유아들은 일의 원인과 결과를 순차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무조건 울거나 토라져서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소리를 지르고 놀잇감을 던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교사는 영유아를 재촉하지 않아야 합니다. 영유아의 감정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교사에게 말을 하고 싶어도 잘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경청한다는 것은 영유아의 언어적, 비언어적 메시지를 모두 알아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청하기! 이렇게 해 보세요

- 영유아에게 눈을 맞추어 관심이 있음을 전해 보세요.
- 영유아의 표정을 읽어보세요. 아마 교사도 영유아와 같은 표정을 짓게 될 거예요.
- 영유아가 말을 할 수도 있고 울 수도 있어요. 쏟아내는 말과 감정의 메시지를 듣고 이해한 대로 간단하게 말해주세요. "친구가 그래서 속상했구나."

교사의 경청하기는

영유아에게 관심이 있음을 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잠깐 주의를 기울여 눈을 맞춰주는 것만으로도 자기 인식과 문제의 원인 및 결과를 연결 지어 사고하는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2 공감하기

- 사람은 정보나 사실을 전달하거나 정서를 공유하기 위해 소통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감정을 이해받기 위해 자신의 입장을 계속 주장하기도 합니다. 영유아들도 교사가 자기 마음을 알아줄 때까지 자기의 입장을 주장합니다. 이때 교사의 공감은 영유아들의 복잡한 문제를 쉽게 풀어가게 열쇠가 됩니다.
- 공감은 영유아가 습득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회적 기술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거울 신경세포를 가지고 태어나 아주 어릴 때부터 어머니 보호자의 기분을 감지하고 공유합니다. 2세 무렵부터는 상대방의 고통과 어려움에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위로하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공감의 신경생리 세포도 다른 뉴런들처럼 사용하면 할수록 즉, 공감을 경험하면 할수록 더 공감을 잘하는 아이로 발달합니다.
- 공감하기는 영유아의 생각이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판단하지 않고 수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감하기! 이렇게 해 보세요

- 영유아의 눈빛과 입, 몸의 자세를 보고, 직관적으로 알아차린 영유아의 감정을 읽어주세요.
“기분이 안 좋구나!”, “많이 놀랐구나!”
- 영유아의 깊은 속마음과 미묘한 감정까지 알아차리려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할 수 있어요. 알아차린 부정적 정서(슬픔, 무서움, 화남, 외로움, 심심함 등)의 이름을 붙여 이야기해 주세요.
“OO이가 화가 났구나!”, “OO이가 무서웠구나!”
- 영유아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나, 손이 가리키는 곳에 영유아의 문제나 요구를 알아차릴 수 있는 단서가 있어요.
“더 필요하니?”, “더 하고 싶구나!”
- 공감에는 격식이나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유아들은 오히려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 표정, 손길이나 몸의 자세와 같은 비언어적인 것에서 교사의 공감 여부를 알아차려요.

교사의 공감하기는
영유아를 휘어 감아 부풀어 오른 감정 풍선에서
부정적 정서를 조금씩 빼내어
말랑말랑하게 해줍니다.
영유아의 방어적 태세가 풀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유대감이라는 선물도 받게 됩니다.



3 한계설정

- 영유아는 교사가 다른 친구들을 도와주고 보살피느라 자기만 돌볼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교사가 설명해주어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사를 기다리기 어렵습니다.
- 또한 어린이집에는 순응하기 어려운 규칙이 많습니다. 지금 한창 재미있는데 왜 정리해야 하는지, 낮잠 시간에 친구랑 이불 속에서 왜 놀지 말라고 하는지 교사가 설명해주어도 순응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 이러한 영유아의 마음을 읽어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영유아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영유아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의 경계를 인식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명확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한계설정은 영유아의 안정감과 자기 조절력을 기르게 합니다.

“지금은 낮잠 시간이라 조용하지? 조용해야 친구들이 잠을 잘 수 있단다.”

한계설정! 이렇게 해 보세요

- 때로는 이유 여부를 막론하고 원칙을 먼저 강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영유아의 안전을 위협하는 파괴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중단시켜야 합니다. 영유아의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즉각적으로 중지시켜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만 멈춰! 친구가 위험해!”
 - 영유아가 친구의 놀이를 방해하거나 주의를 분산시키는 행동을 할 때, 상대방의 경계를 존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영유아에게 한계를 설정해주어 자기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동화 들을 준비하자! 목소리는 줄이자. 선생님 소리가 크게 들리게 해보자!”
 - 영유아가 친구의 놀이를 방해하거나 주의를 분산시키는 행동을 할 때, 상대방의 경계를 존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영유아에게 한계를 설정해주어 자기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동화 들을 준비를 하자! 목소리는 줄이자. 선생님 소리가 크게 들리게 해보자!”
- 영유아가 처한 상황을 인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영유아에게 안정감을 갖게 합니다. 지금의 상황과 정해진 일과 및 규칙 등을 알려주세요.
“바깥 놀이 더 하고 싶지? 그런데 점심시간이 되어서 정리하고 들어가야 해~ 너를 혼자 여기 두고 들어갈 수는 없단다.”

교사의 긍정적인 한계설정은
영유아에게 신뢰감과 안정감을 가져다줍니다.
사회의 규범과 제도가 우리를 지켜주듯이
교사의 합리적인 한계설정은
영유아들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삶의 기둥과 울타리가 되어 줍니다.



4 대안제시

- 주어진 상황과 영유아의 요구 사이에 격차가 크거나, 영유아의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주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제3의 대안을 찾아보세요. 교사와 함께 영유아가 대안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영유아가 제안한 대안을 교사가 수용해줄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교사가 제안한 대안에 대해 영유아가 수용할 수 있다고 결정하면, 교사가 제안한 대안을 함께 선택하여 실천해보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은 점심 먹으러 가고, 집에 가기 전에 바깥 놀이를 한 번 더 할까?”

대안제시! 이렇게 해 보세요

- 싫어하는 일은 줄여 주거나 다른 쉬운 방법으로 대체해주세요.

“바닥에 있는 놀잇감 중에서 나무로 만들어진 것만 정리해 볼까?”
 - 친해지고 싶은 친구와 같이 참여하는 기회를 주세요.

“오늘 실외 놀잇감 정리 부지런히 하고 ○○이와 같이 점심 먹으러 갈까?”
 - 방해 행동이나 분산 행동을 할 때는 호기심을 가질 만한 대체 놀이를 제안해주세요.

“잠이 오지 않으면, 잠이 올 때까지 매트에 가만히 누워있어도 되고, 혼자 조용히 손가락 놀이하면서 쉴 수도 있어. 누워볼까?”
 - 영유아가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제안해주세요.

“산책가야 하는데, 친구랑 손잡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걸을까? 노래하면서 걸어갈까?”
- 영유아가 대안을 스스로 선택하였다면, 책임감을 가지고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한계를 설정하고 한계 내에서 결정한 대안을 선택하는 것은 영유아들이 주어진 여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적응력을 기를 수 있게 합니다.

“벽에 그림을 그릴 수 없지만, 다른 종이에 그릴 수는 있단다. 큰 종이 벽에 붙여서 그려볼까? 택배 상자랑 검은 도화지랑 있는데. 너희는 벽에 무엇을 붙여서 그리고 싶니?”

교사가 제시한 대안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영유아가 수용할 만큼 매력적이어야 하며, 영유아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좋은 공공의 선(善)을 추구하는 과정을 배우고 차선을 선택하는 용기를 경험하게 되면서 영유아는 자신의 선택에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5 기다리기

- 기다리기는 사실 교사를 위한 전략입니다. 영유아의 어려움에 대해 경청하고, 공감하고, 한계설정을 하고,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영유아가 교사의 대안을 수용하지 않고 거부하거나 소통을 회피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때 교사는 정서적으로 동요하거나 분노하며,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지 못하고 부주의한 지도를 하기 쉽습니다.
- 교사는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가 조절되는 것을 기다려야 하고 설정된 한계에 대해 영유아가 수용할 때까지 기다리며, 영유아가 제안된 대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기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영유아의 격분한 감정이 가라앉기를 기다려줄 때 다음 사항을 유의해 보세요.

첫째, 영유아를 보육실 공간에서 분리하거나 사회적으로 배제 시켜서는 안 됩니다.

둘째, 교사가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고 부주의한 지도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언어와 행동을 차분하게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영유아는 교사의 표정이 무서우면 자신이 벌을 받았다고 여깁니다.

셋째, 영유아와 교사의 부정적 정서가 가라앉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스트레스 장면에서 원인을 찾고 책임을 묻기보다는 그 상황을 물리적으로 잠시 벗어나, 물을 한잔 마시거나 심호흡한 후 해결 지향적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영유아를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사는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가 가라앉았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영유아가 너무 오랜 시간 기다리면 교사가 자신을 기다려줬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소외당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다섯째, 영유아가 다시 친구들과 무리로 들어와서 같이 놀이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교사와 함께 손을 잡고 친구들의 놀이를 관찰하고 둘러보며, 천천히 마음을 정해도 된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또한 친구들의 놀이에 참여하고 싶으나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교사는 해당 영유아가 자연스럽게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이 주차장을 만들고 있대, 주차비 계산하는 곳도 있으면 좋겠는데 OO이도 같이 만들어 볼까?”

여섯째, 영유아의 기분이 나아져서 친구들과 같이 놀이를 해도 교사는 수시로 영유아의 상태를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서의 소용돌이는 금방 찾아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즐거운 경험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교사의 기다리기는
영유아가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권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다만 영유아가 안전하고 안정적인 시공간에서
스스로의 모습을 보도록 해야 합니다.
자칫 교사가 부주의한 지도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교사도 자기 조절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유아 권리존중 상호작용의 적용

1

영아반에서의 권리존중 상호작용

만2세 새싹반 교사는 이제 영아들의 놀이를 정리하고 점심 식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영아들의 손을 씻고 책상을 닦아야 하며 배식도 해야 합니다. 교사의 마음이 바쁩니다. 그런데 ○○이는 계속 놀고 싶다며 놀잇감을 내려놓지 않고 있고 △△이는 그 놀잇감을 정리하자며 뺏으려고 합니다. 한편 어떤 영아는 화장실에서 용변 뒤처리를 해달라며 교사를 큰 소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손을 혼자 닦고 교사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교사를 부르며 옵니다.

- 이 교실에서 교사는 무엇부터, 누구부터 상호작용을 해야 할까요?
영아의 권리존중 상호작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또래 간 갈등 상황에서 영아와의 상호작용

안전확보

- 영유아가 놀잇감을 서로 갖겠다고 잡아당기고 있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다칠 수 있으므로 즉각 중재합니다.
- 놀잇감을 가지고 다룰 때, 우선 다툼의 원인이 되는 놀잇감을 안전지대에 둘 수 있게 합니다.
“○○아, △△아 소방차 여기에 내려놓자!”

경청하기

- 마음이 더 불편해 보이는 영아의 입장을 먼저 들어줍니다.
“○○이가 가지고 놀던 소방차를 △△이가 갑자기 가져가서 놀렸구나~”
- 양측 입장을 편견과 차별 없이 들어줍니다.
“△△이는 정리 시간이라서 소방차 정리하려고 했구나~”



공감하기

- 두 영아의 마음을 번갈아 가면서 공감해줍니다.
“○○이는 △△이가 말도 없이 소방차 가지고 가서 기분 나빴구나~, △△이는 소방차 정리하려고 한 건데 ○○이가 뺏어 가냐고 해서 기분 나빴구나~”
- 두 영아의 마음을 공감해주며 마음을 진정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줍니다.
“○○이랑 △△이랑 서로 왜 그랬는지 마음을 알게 됐는데, 이제 마음이 좀 풀렸니?”

한계 설정

- 영아들에게 기대하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지금 소방차 정리하면 점심 먹고 낮잠 자고 난 후에 또 놀 수 있어~, 선생님이 이제 친구들 손 씻는 거 도와주러 가야 하는데, 소방차를 어떻게 정리할까?”

대안 제시

- 대안 행동을 영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누가 바구니에 소방차를 정리할까? 바구니는 누가 교구장에 정리할까?”

기다리기

- 제시한 대안 행동을 영아들이 어떻게 수행하는지 확인하고 긍정적인 면을 격려합니다.
“○○이랑 △△이가 소방차를 같이 정리했구나. 이제 손 씻으러 갈까? 비뽀비뽀 세면대로 출동!”

공격행동은 그대로 멈추게 해 주세요!

영아들은 자신의 경계를 침범받거나 기회를 빼앗길 때 방어하며 공격하기 쉽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알리거나 상대방의 입장을 알아차리는데 미숙하여 다툼이 잦고 공격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는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친구를 공격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파괴 행동은 즉각적으로 단호하게 중지시켜야 합니다.

2 개별적 요구를 가진 영아와의 상호작용

경청하기

- 영아들이 동시에 개별적인 요구를 가질 때, 각각의 요구에 대해 따뜻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요구부터 반응해야 할까요?
“누구의 목소리일까? 어디에서 부르는 걸까?”



공감하기

- 교사는 영아의 요구를 알아차린 즉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아, 선생님이 금방 가서 도와줄게! 가는 종이야! 이 노래 끝나기 전에 선생님이 갈 거야~ 한 꼬마 두꼬마 세 꼬마 인디언~”
- 교사와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영아의 요구부터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사가 인지할 수 있는 거리에서 자신의 요구에 반응하지 않으면 영아는 무시 받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가 손을 혼자서 씻었구나! 깨끗하게 씻었네!”

요구를 알아차리는 '즉시 반응'

영아는 교사가 나만의 선생님이기를 바랍니다. 영아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실수하더라도 스스로 해보고 싶은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아는 교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 교사가 자기의 마음을 알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주기를 바랍니다.

3 방해 행동하는 영아와의 상호작용

경청하기

- 영아들은 의도적으로 방해한다기보다는 결과적으로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불편을 주는지 인지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영아의 어떤 행동이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지 비난 없이 여러 번 이야기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 영아와 눈을 맞추고 표정을 살피며 말문을 열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교사가 영아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감하기

- 교사는 영아가 상황을 비판 없이 인지하도록 설명해줍니다.
“○○이가 책을 보고 있었는데, 큰 소리가 나서 신경이 쓰였구나!”
“△△이도 친구들이 놀랐다고 해서 당황했구나!”

한계설정

- 주변에서 듣는 사람이 놀라거나 불편해하지 않게 말해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급하고 위험할 때는 큰 소리로 말해야 하지? 그런데 지금은 친구들이 책을 보면서 조용하게 놀이하고 있네.”

대안제시

- 서로 불편하지 않으면서 놀이를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모색해봅니다.
“조용하고 재밌는 것이 뭐가 있을까? 선생님이랑 같이 다른 책 볼까?”
다른 친구들과 같이 놀이할 수 있는 걸 찾아본다.
“다른 친구들이 놀이하는 것을 조금 지켜볼까? “친구들과 어떤 놀이 할까?”

기다리기

- 교사는 영아의 주변에서 영아가 편안한 마음으로 놀이하는지 확인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 지원해줍니다.
- 다른 사람이 나의 행동이나 말에 대해 ‘싫다’고 할 때는 멈춰야 함을 알려줍니다.

또래 관계 속에서 사회를 배워나가는 영아

영아들은 타인의 감정은 알아차릴 수 있지만, 친구가 왜 화가 났는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원인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또래와 관계를 맺으려고 시도한다 해도 아직은 사회적 기술이 매우 서투르기 때문에 영아들끼리 잘 놀다가도 금방 화를 내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2

유아반에서의 권리존중 상호작용

만4세 열매반 교사입니다. 이제 유아들은 오전 간식을 다 먹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짜증을 내는 소리가 들려 고개를 들어보니 울먹거리는 유아, 소리 지르는 유아, 뛰어다니는 유아.. '휴.. 무엇부터, 누구부터 상호작용해야 할까?'

- 유아반 교실은 역동적입니다. 저마다 다른 욕구를 가진 유아들이 상호작용하며 사건 사고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공간에 있지만 사회적 기술은 더 많이 배우고 연습해야 하는 유아들입니다.
- 이 교실에서 교사는 유아의 권리존중 상호작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또래 간 갈등 상황에서 유아와의 상호작용

안전확보

- 주위 사람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행동이므로 최우선 순위로 개입해야 합니다.
- 적대적 분노는 더욱 심한 상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분노를 일으키는 상황과 거리를 두게 합니다.
- 다친 유아가 있는 경우 어디를 다쳤는지, 어디가 가장 아픈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응급 처치를 해야 합니다.



경청하기

- 교사는 유아들의 감정을 읽어준 후 무슨 사정으로 갈등이 생겼는지 알고 싶다고 이야기 하며, 유아들이 말문을 열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재밌게 놀이하다가 갑자기 화나는 일이 생겼구나. 왜 화가 났는지 말해줄 수 있니?... (침묵)..”

공감하기

- 교사는 유아들이 상황을 비판 없이 인지하도록 설명해줍니다.
“○○이는 블록으로 머리를 맞아서 머리가 아프고 화가 났어, △△이는 친구가 밀어서 넘어졌구나. 그리고 □□이는 블록으로 만들고 있던 배가 무너져서 속상했어.”
- 유아들의 마음을 공감해주며 진정하도록 시간을 줍니다.
“저런.. 그래서 화가 났구나! 그 모양 블록은 하나인데 서로 양보할 수가 없었구나~”

한계설정

- 교사는 유아들과 반의 규칙과 약속을 기억하도록 이야기 나눕니다.
“기억하니? 우리 반에서는 다른 친구를 아프게 하는 행동은 하지 않기로 했었지? 내가 필요한 물건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대안 제시

- 대안적 행동의 예를 보여줍니다.

[내 입장 말하기]

“이거면 좋겠는데, 네가 쓰고 있으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기다리고 있어! 다 쓰고 말해줘!”, “나도 필요한데! 조금만 해보고 너 줄게!”

[협조 구하기]

“빌려줄래?”, “이것이랑 바꿔줄 수 있니?”, “다른 것 먼저 만들고 있을래? 내가 다하고 줄게!”

기다리기

- 서로 사과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기다려줍니다.

[사과하기]

“네가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지 몰랐어, 네가 뺏어갔다고 생각해서 널 밀었어, 미안해”

(상대 입장 + 내 실수 + 용서 구하기)

- 분기가 가라앉으면 어떻게 하고 싶은지 대안을 이야기 나눕니다.

“다시 만들고 싶니? 다른 놀이 하고 싶니? 어떻게 놀이할지 이야기해볼까?”

유아 행동에 대한 교사 개입의 우선순위

유아들의 파괴·공격행동은 안전에 위협이 되므로 최우선으로 즉각 대처해야 합니다. 유아의 방해 행동은 또래 간 갈등을 촉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 중재해야 합니다. 유아가 관심을 얻고 싶어 하는 욕구이거나 혼자 심심해서 해본 행동이 친구들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유아는 주변 사람에게 위협을 주지는 않지만 불쾌감을 주면서 관심을 끌 만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친구들에게 불쾌감을 주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 없이 방치하면 방해 행동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절한 의사소통 방법과 자기 규제 행동을 가르쳐 주도록 합니다.

2 약속을 지키지 않는 유아와의 상호작용

경청하기

- 교사는 유아들의 감정을 읽어준 후 무슨 사정으로 갈등이 생겼는지 알고 싶다고 하며 유아들이 말문을 열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손 씻으려고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뒤에 서지 않고 중간에 끼어들었네~ (침묵)..”

공감하기

- 상황을 비판 없이 인지하도록 설명해줍니다.
“○○는 손을 씻으려고 줄을 서 있었는데, △△가 갑자기 앞으로 와서 놀랐구나.
△△는 ○○가 몸을 갑자기 밀어서 기분이 안 좋구나.”
- 유아들의 마음을 읽어줍니다.
“○○는 줄 서서 손 씻고 간식 먹으려고 했는데 속상했겠다.”
“△△는 앞에 서고 싶었니?”



한계 설정

- 줄서기 약속을 다시 한번 인지하도록 알려줍니다.
 - 줄을 설 때는 맨 뒤에 서기, 한 줄로 서기
 - 친구가 어디가 맨 뒤인지 모를 때에는 친절하게 알려주기
 - 다른 사람의 몸을 밀면 넘어져서 다칠 수 있어 위험하고, 기분이 나빠진다고 알려주기

대안 제시

- 줄서기를 할 때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 간식을 먹기 전에 서로의 사과가 필요함을 안내해 줍니다.
“끼어들기 하는 친구에게 줄의 끝을 어떻게 알려줄까? 자기 순서를 기다리던 친구에게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 말로 하지 않고 몸을 밀어서 다칠 뻔한 친구에게 어떻게 사과할 수 있을까?”

기다리기

- 차례를 잘 지키는 건 어렵지만 우리 반 친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점점 나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예방적 조정 - 공간변화, 일과시간 변화, 규칙 변화

- 줄을 서는 공간이 비좁아서 세면대 앞이 혼잡하다면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에 기다리는 자리를 마련해놓아도 좋습니다.
- 전이 시간이 부족하면 줄을 서는 마음이 조금해져서 끼어들기가 많이 발생합니다. 전이 시간을 충분히 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손 씻기 노래에 맞춰 손을 씻도록 하면 줄 서 있을 때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3 방해 행동하는 유아와의 상호작용

경청하기

- 교사는 친구들의 불쾌감에 대한 표현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포크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네~”

공감하기

- 분산 행동의 원인을 알아본 후 반응합니다. 무료하거나 심심해서 하는 행동일 수도 있고, 교사나 친구들과 상호작용을 하고 싶어서 관심을 끄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분산 행동에 대해 비판 없이 유아의 마음을 읽어줍니다.
“간식 다 먹고 친구들이 다 먹기를 기다리는구나. 친구들과 무슨 놀이 하고 싶니?”
“어떤 친구와 같이 간식 접시를 정리하고 싶니?”



한계설정

- 반의 규칙과 약속, 유아에게 기대하는 행동을 기억하도록 이야기해 줍니다.
“간식을 다 먹고 나면 정리하고 조용한 놀이를 하면서 친구들을 기다리자!”
“두드리는 소리 만드는 놀이는 친구들에게 방해되지 않는 공간에서 할 수 있어.”

대안제시

- 유아의 욕구를 채워주면서도 교실에서 수용 가능한 대체 행동이나 자기 규제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친구들을 기다리는 동안 책을 읽어도 되고, 퍼즐이나 종이접기를 해도 괜찮아.”
“놀이하고 싶은 친구에게 가서 같이 악기 놀이하자고 말해볼까?”

기다리기

- 교사는 유아가 대안으로 제시한 것 중 선택하면 존중해 주며 교실의 규칙과 약속을 지키는지 확인하고, 기대하는 행동을 하였을 때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줍니다.
“친구랑 같이 종이접기 했구나.”
“친구랑 순서대로 소리를 내니까 멋진 음악이 되었네!”

긍정적 관계 지원 - 경계 존중하기, 또래 놀이에 들어가기

- 친구의 관심을 얻기 위해 친구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면, 우선 친구와 일정 거리를 두고 친구가 관심 갖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한 후 근접한 거리에서 비슷한 놀이를 하도록 안내합니다.
- 친구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친구 손을 잡거나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한다면, 다른 사람의 몸을 만지거나 가까이 가려고 할 때 허락을 받아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 다른 사람이 나의 행동이나 말에 대해 ‘싫다’고 할 때는 멈춰야 함을 알려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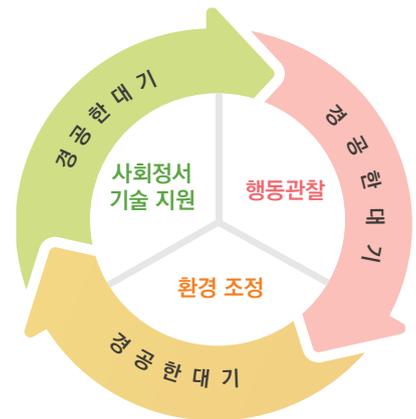


**반복되는 문제행동 지원을 위한
권리존중 상호작용**

1

영유아 문제행동 지원의 원리

- 일반적인 상호작용의 원리로 영유아의 반복되는 문제행동이 쉽게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동일하게 나타나는 문제 양상이어도 영유아의 기질, 성향, 가족의 특성, 함께 생활하는 또래 영유아들의 성향 등 다양한 요인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 문제행동이 반복되는 영유아의 경우 다음의 원리로 상호작용을 지속해보세요.
 - ① **행동 관찰** : 영유아의 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면서 행동 양상이 어떠한지, 특정 시간이나 상황, 맥락에 따라 반복되는지 등 이런 행동이 나타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세요.
 - ② **환경 조정** : 영유아의 문제행동 반복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물리적 환경, 시간 환경, 인적 환경(교사의 반응 등)을 바꾸어보세요. 그리고 환경 조정에 따라 영유아의 행동이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세요.
 - ③ **사회정서 기술 지원** : 영유아가 하지 않기를 바라는 행동 소거에 초점을 두는 대신, 영유아가 그 상황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대안 행동 정착에 집중하세요. 이를 위해 대안이 되는 행동을 미리 안내해 주세요. 평소에 모든 영유아는 교실 규칙을 배우고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익혔을 것입니다. 이미 익히고 있는 규칙 중에서 대안 행동이 될 수 있는 행동을 해당 영유아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해 주세요. 해당 영유아를 관찰하면서 문제 상황 직전에 그 영유아에게 대안 행동을 상기시켜 주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영유아가 문제행동 대신 바람직한 대안 행동을 했다면 이를 인식하고 칭찬해주세요.
- 이 원리를 한 두 번 시도하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 행동이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교사의 의식적인 노력에 따라 변화가 있는 부분도 있고, 문제가 지속되거나 새로운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시 영유아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위에 제시된 절차를 반복해 보세요.



일부 영유아의 문제행동은 교사 간 논의, 부모와의 정보 공유와 협력, 전문가의 중재 등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원장님과 의논하여 부모와 긴밀하게 의사소통함으로써 영유아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영아의 문제행동 지원을 위한 상호작용 사례

1 친구를 깨물어요 ①

행동 관찰

행동의 패턴과 원인을 살펴보세요

[관계 욕구]

규민이는 친구들이 너무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심정적으로 압도되는 것 같다. 특히 자기 욕구를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모르고, 깨무는 행동이 돌발적으로 나온다.

[자극 추구하기]

규민이에게 깨무는 행동은 일종의 소통 수단으로 보인다. '너에게 관심이 있어. 널 깨물면 어떤 맛인지, 네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 '저번에 너를 깨물었더니 울었잖아. 오늘은 어떻게 나올래?'

환경조정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환경을 조정해요

[경청하기]

놀이를 지켜보다가 친구가 규민이 놀잇감을 건드리면, 규민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철수는 이 거미가 재미있나 봐. 우리 철수에게 이 거미를 보여줄까? 난 거미야! 이렇게 기어가!!"

[공감하기]

규민이는 친구가 가까이 앉는 걸 싫어하므로 미리 자리를 조금 넓혀준다. "규민이하고 철수하고 이렇게 조금 떨어져 앉아서 놀자"

사회정서 기술 지원

대안 행동을 안내하고 격려해주세요

[한계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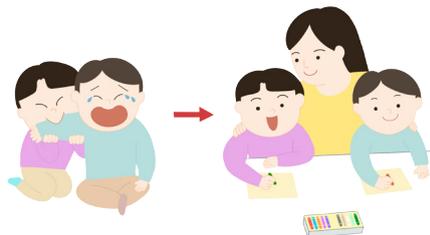
"친구 깨물면 아파. 말로 하자"

[대안제시]

"친구야, 이거 보고 싶어? 이렇게 말해보자"

[기다리기]

"규민이가 친구에게 같이 보자고 말했구나. 규민이 잘했어. 선생님도 참 기쁘다"





문제행동을 지원할 때 이런 점도 생각해 보세요

영아에게 대안 행동을 꾸준히 다양하게 안내해 주세요.

- 규민이가 친구를 깨울 때는 즉시 제지하고, 규민이보다는 물린 아이의 반응에 먼저 집중해주세요.

경청하기 “철수야, 규민이가 물어서 아팠지?”

공감하기 “철수가 아파서 우니까 선생님 마음도 아프네. 선생님이 호~ 해줄게. 이제 좀 어때?”

- 규민이에게 매번 형식적으로 사과하도록 하면 상황에 대한 이해나 공감 능력이 증진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규민이보다는 물린 아이에게 공감해주세요.

공감하기 “철수가 울고 있네. 규민이가 깨물어서 철수가 아프고 슬프네”

대안제시 “다음에는 ‘규민아, 물지마’ 라고 말해보자”

- 규민이가 친구와 소통할 수 있는 대안 행동을 안내해 주세요.

한계설정 “규민아, 친구를 깨우는 건 안 되는 거야, 친구에게는 말로 하자”

대안제시 “규민아 정인이하고 함께 놀고 싶어? 우리 정인이하고 함께 그림책 볼까?
‘정인아, 여기 앉아서 같이 책 보자!’ 라고 말해보자.”

- 규민이는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것에 미숙하므로 평소에도 꾸준히 다양하게 지원해주세요.

공감하기 (책을 읽다가) “규민아, 호랑이가 토끼를 왕! 하고 깨물면, 토끼는 어떻게 될까?
그럼 규민이가 정인이를 깨물면 정인이는 어떻게 하니? 정인이는 왜 울지?
아! 정인이라도 토끼처럼 많이 아파서 우는 거구나? 그러면 앞으로는 정인이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대안제시 (미술 놀이할 때) “규민아, 정인이랑 같이 여기에 색칠해볼까? 그래, 같이 앉아서
사이좋게 해보자. 규민아, 정인에게 크레용 쥐볼까? 잘했어”

대안제시 (하원 시간에) “규민아, 정인이랑 철수한테 잘 가라고 인사할까? ‘친구들아, 잘 가!
친구들아 내일 만나! 내일도 재미있게 놀자!’ 라고 해보자”

2 친구를 깨물어요 ②

행동 관찰

행동의
패턴과 원인을
살펴보아요

[요구하기]

정인이는 자기가 원하는 걸 갖고 싶을 때, 또는 친구의 것을 빼앗고 싶을 때 깨문다.
'이 장난감 갖고 싶어. 내 거야', '내가 할 건데 너는 왜 여기 있는 거야, 저리 가'

[과제 회피하기]

정인이는 규민이의 깨우는 행동을 모방한 것 같다.
이제 정인이는 배고프거나 피곤하거나 지루할 때 혹은 불안할 때도 깨우는 행동이 나타난다.
'나 이거 싫어요', '너무 피곤한데 왜 이걸 기다려야 해요'

환경조정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환경을 조정해요

[경청하기]

정인이의 놀이를 지켜보며 관심 있는 놀잇감에 접근하는 방식을 살펴본다.

[대안제시]

정인이가 다른 놀잇감을 탐색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한다.
"친구야, 네 인형 만져볼게!" 하고 만져보자. 친구가 싫다고 하네? 그러면 우리 다른 장난감 찾아보자"

[놀잇감 조정]

(필요할 때는) 같은 놀잇감을 추가로 배치한다.

[경청하기]

정인이가 일과 중 피곤하거나 힘들어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본다.

[공감하기]

"정인이가 신나게 놀고 나니 좀 피곤하구나? 저기 쿠션에 앉아서 잠깐 쉬까?"

[일과 조정]

피곤해지는 영아가 여러 명 있을 때는 일과를 조정하여 낮잠 시간을 앞당긴다.

사회정서 기술 지원

대안 행동을
안내하고
격려해줘요

[공감하기]

"친구가 가지고 노는 인형을 정인이도 갖고 싶구나. 그런데 친구를 깨물면 친구가 아파"

[대안제시]

"(저 인형 대신) 이 바구니에 뭐가 있는지 살펴볼까?"
"정인아, 선생님하고 붙이기 놀이해볼까?"

[기다리기]

"정인이가 새로운 놀이를 찾았네. 잘했어"
"정인아, 친구와 사이좋게 잘 노네~ 멋지다"

[한계설정]

"친구 깨물면 아파. 말로 하자"

[대안제시]

"정인이 배고프니? 그러면 '선생님 간식 먹고 싶어요.' 라고 해보자"

[기다리기]

"정인이가 '선생님, 해주세요!' 라고 말로 할 수 있네. 아주 멋져"



문제행동을 지원할 때 이런 점도 생각해 보세요

영아의 행동이 쉽게 고쳐지지 않아도 대안을 꾸준히 안내해 주세요.

- 다양한 대안을 적용해 보았으나 깨우는 행동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영아의 깨우는 행동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교사가 일정 기간 해당 영아의 가까이에서 있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순히 영아 옆에 앉아 어깨에 손을 얹는 것만으로도 영아에게 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경청하기 “정인아, 친구 자동차가 재미있어 보이는구나.”

한계설정 “친구야, 내가 만져 봐도 돼?” 라고 말해볼까?”

- 깨우는 행동을 하는 영아에게 혹여라도 되돌려 (살짝) 깨우는 행동을 하지는 마세요. 영아는 인과관계를 이해하기 어려워 고통과 혼란을 느낄 뿐입니다. 오히려 혼란스러움을 느낄 때는 깨우는 행동이 문제해결 방법이라고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한계설정 “정인아, 친구 깨물면 아파. 친구가 아파서 우네”

대안제시 “정인아, 친구에게는 말로 하자”

- 깨우는 행동이 계속되어도 인내심을 가지도록 합니다. 영아가 깨우는 행동을 어떤 상황에서 왜 하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추론해보세요. 그 행동을 통해 영아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요? 교사의 관심을 얻으려고 친구를 깨우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세요. 깨우는 행동이 쉽게 고쳐지지 않더라도 영아에게 몇 가지 대안 행동을 꾸준히 안내해 주세요.

공감하기 “수민아, 정인이가 깨물어서 아팠지? 선생님도 속상하네”

대안제시 “정인아, 친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재미있는 거 또 있나 찾아볼까?”

3 하루 종일 울고 보채요 ①

행동 관찰

행동의
패턴과 원인을
살펴보아요

[요구하기]

‘선생님, 친구들 말고 나만 안아주세요. 친구들 보지 마세요.’

[관계 욕구]

‘선생님이 나만 보고 놀아주면 낯설어도 참을 수 있어요.’

환경조정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환경을 조정해요

[공감하기]

개별 수유나 기저귀같이 시간에 언어적, 비언어적 접촉을 늘린다.
“선생님과 같이 우유 먹으니까 좋지? 선생님도 정희가 좋아”

[경청하기]

“정희야, 이제 우유 그만 먹고 싶구나? 잘 먹었네. 잘했어”

[한계설정]

“정희가 선생님이 안아주지 않아서 속상하구나. 대신 선생님이 옆에 앉아서 무릎에 올려줄게”

사회정서 기술 지원

대안 행동을
안내하고
격려해주세요

[경청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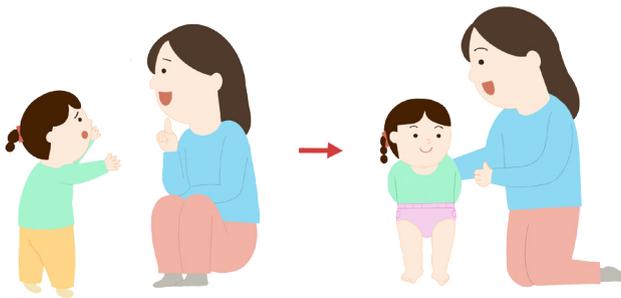
“정희가 이 트럭 가지고 밀어보는 거 선생님이 보고 있을게. 트럭에 짐을 실었나요?”

[한계설정]

“규희 기저귀 갈고 네 기저귀도 다시 보자. 잠깐 기다려”

[기다리기]

“선생님이 친구 기저귀 갈아주는 동안 잘 기다리고 있었네. 잘했어”





문제행동을 지원할 때 이런 점도 생각해 보세요

영아를 주의 깊게 관찰해보세요. 행동의 패턴과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한발 물러서서 관찰해보면 '영아가 종일 우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가정이 아닌 낯선 환경에 친숙해지고 규칙적인 일과에 적응하고 나면 영아가 울고 보채는 일도 확연히 줄어들 것입니다. 교사가 영아의 행동과 놀이를 관찰할 때 이렇게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 영아가 하는대로 따라주세요. 가령 컵을 건네주며 마시는 시늉을 먼저 하지 말고 영아가 컵을 어떻게 다루는지 지켜보세요.
- ▶ 천천히 여유 있게 지켜보세요. 먼저 도와주거나 제시하지 말고 영아가 어떻게 탐색하고 문제를 겪고, 이를 해결하는지 지켜보세요.
- ▶ 영아가 보내는 여러 가지 신호를 주의 깊게 읽어보세요. 말소리, 표정, 몸짓 등으로 어떤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살펴보세요.
- ▶ 영아가 사물과 환경을 어떻게 보고, 듣고, 만지며 느끼고, 냄새 맡고, 맛보는지 지켜보며 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 ▶ 영아가 또래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선불리 개입하거나 권하지 말고 지켜보세요.

영아가 편안하고 활발하게 놀 수 있도록 풍부한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 보육실에는 우리의 관심을 끄는 놀잇감이 많이 있어요.

경청하기 공감하기 (등원 시간에) “성민아, 오늘 선생님이 새로 갖다 놓은 장난감이 뭐 있는지 볼까? 성민이 오면 보여주고 싶어서 선생님이 기다렸어”

- 놀잇감 중에는 또래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놀잇감도 있어요.

대안제시 “소정아, 이 퍼즐은 친구랑 같이 하면 더 재미있겠다, 누구랑 같이 하면 좋을까? 규민이랑 같이 해볼래?”

- 놀이 공간은 여럿이 함께 놀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지만 공간이 비좁을 때는 교사가 크게 넓혀주기도 해요.

경청하기 공감하기 “앗, 친구들이 다 같이 모이니 조금 비좁구나. 선생님이 이걸 밀고 조금 넓혀줄게. 편하게 놀자”

- 0세 반에는 배밀이를 하거나 기어 다닐 수 있는 개방 공간이 충분히 있어요.

경청하기 “지선이가 이제 배로 밀고 다닐 수 있네. 여기까지 왔구나! 아유, 잘한다. 또 해볼까?”

- 2세 반에는 친구들이 뛰어다니지 않고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통로가 어딘지 모두 알 수 있어요.

한계설정 “친구들아, 교실에서는 뛰지 말고 걸어 다니자. 여기 이 길로 걸어가면 되겠지?”



영아가 익숙해질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일과를 진행해 주세요.

- 교사는 (벽에 붙어 있는) 일과 포스터나 그림 카드를 보여주면서 다음 일과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영아는 안정감을 가질 수 있어요.

대안 제시 “지인아, 먼저 기저귀 갈고 그 다음에 함께 그림책 보자”

- 교사는 일과를 진행할 때 영아들이 돕도록 권해주세요.

대안 제시 “철수야, 선생님이 기저귀 가는 동안 깨끗한 기저귀 좀 들고 있어 줘. 그래, 고마워”

한계 설정 “진희야, 밥 먹을 때는 식탁에 앉아서 먹자. 식탁에서 쓸 수 있게 저 휴지통 좀 가져올래? 고마워. 이제 식탁에 앉아서 먹자”

- 교사는 다음 일과가 무엇인지 안내해 주시고, 무엇을 하는 건지 물어보세요.

경청하기 “규희야, 이제 밥 먹었으니까 다음에는 뭐 해야 할까? 맞아, 치카치카 해야지. 알려줘서 고마워”

- 교사는 때로 어제 있었던 일도 얘기해주세요.

경청하기 “어제 우리 ○○이가 놀이 마치고 장난감 잘 치웠었는데 기억나?” “어제 ○○이가 밥을 꿀떡! 하고 아주 잘 먹었는데 기억나지? 오늘도 그렇게 먹어볼까?”

- 어떤 친구가 놀다가 졸려 할 때는 교사가 일과를 조정해서 그 친구가 잠들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공감하기 **대안 제시** “소희가 너무 졸립구나. 여기 와서 잠깐 자자”

- 1-2세 반에는 친구들이 전이 시간에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전이를 안내하는 소리 자료나 시각 자료를 활용해주세요.

한계 설정 “(딸랑딸랑) 이제 정리하고 밖에 나가 놀자”

- 실내놀이를 마치고 바깥 놀이하러 나가야 하는데 더 놀고 싶어 하는 친구가 있으면 교사는 그 친구 마음을 공감해 주고, 친구가 놀이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공감하기 “미정이가 더 놀고 싶구나.”

한계 설정 “이따가 들어와서 더 놀고, 지금은 친구들과 함께 나가볼까?”

대안 제시 “미정이가 선생님 손잡고 나가면 좋겠는데, 선생님 손 잡아줄 수 있어?”

기다리기 “선생님이 미정이 정리할 때까지 친구들과 기다리고 있을게. 고마워”

4 하루종일 울고 보채요 ②

행동 관찰

행동의
패턴과 원인을
살펴보아요

[과제 회피하기]

밥을 먹을 때면 삼키려 하지 않고 특히 더 보채는 것 같다.
밥을 잘 먹지 않아서 낮잠에 쉽게 들지 못하고 오후에 배가 고파 피곤해한다.

[자극 추구하기]

선호하는 음식(우유 등)만 먹고 놀이에 몰입하지 못한다. 심심하고 무료해서 자극이 필요한데 혼자 탐색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환경조정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환경을 조정해요

[경청하기]

“희성이가 오늘 밥을 잘 못 먹네”

[대안제시 + 공감하기, 교류]

“선생님이 희성이 밥 먹을 때 손잡아주니까 좋구나? 활짝 웃었네! (마주 보며 웃는다)”

[대안제시]

(교사를 돕도록 조정) “희성이가 밥 꼭꼭 씹어 먹고, 티슈로 책상 닦아볼까? 우와, 희성이가 도와준 덕분에 밥 먹은 자리가 깨끗해졌네”

[대안제시]

“우리 (먼저) 밥 먹고 (그리고 나서) 밖에 나가자”

사회정서 기술 지원

대안 행동을
안내하고
격려해주세요

[경청하기]

(밥을 오래 물고 있을 때) “희성아, 밥 먹기 어렵니?”

[공감하기]

(의사소통 시도) “그렇구나, 그래서 선생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구나.
희성이가 밥을 먹는 게 어렵구나”

[한계설정]

“희성이가 밥을 잘 먹어야 건강하게 쑥쑥 자라거든. 좀 더 먹어볼까?”

[대안제시]

“희성이가 손가락 들고 혼자 먹어볼까? 그래, 잘했어. 입에 음식이 쑥 들어가네”

[기다리기]

“희성이가 밥을 잘 먹어서 선생님은 정말 기뻐. 희성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겠네”



문제행동을 지원할 때 이런 점도 생각해 보세요

교사가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해 주세요. 영아가 밥을 잘 먹지 못하고 이후 일과에 몰입하지 못하여 계속 울고 보채면 교사도 지치기 쉽습니다. 이때 교사가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을 인식하고 이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요소를 체크 하면서 연습해 보세요.

- ▶ 본인의 감정 상태가 힘들다고 느껴진다면 잠깐 멈추어야 합니다. 급하게 반응하면 '멈춰야 할 순간'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 순간을 잡았다고 스스로 칭찬해주세요
- ▶ 깊은 호흡을 여러 번 하세요. 그러면서 잠깐 멈추지 않았다면 스스로의 목소리 톤, 표정이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 ▶ “이 순간”은 영아의 행동을 다르게 보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영아에 대한 신념, 기대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영아가 밥을 삼키려 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삼키는 소근육이 아직 덜 발달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어쩌면 소화가 잘 안되어서 속이 불편하니 삼키지 않으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 ▶ 이제 내 생각을 바꿔 보세요.
 “규민이는 하루 종일 울고 보챌 거야. 난 규민이를 다룰 수가 없어.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아”
 → “난 이 상황을 다룰 수 있어. 필요하면 다른 선생님이나 원장님에게 도움을 구할 수도 있어. 규민이가 왜 잘 씹지 못하는지, 계속 피곤해하고 보채는지 다시 살펴보자”





문제행동 지원의 원리는 “따뜻한 관계 맺기”를 토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선생님은요, 언제나 나를 이렇게 대해주세요.

경청하기

- ▶ 선생님은 어떨 때 내 소리와 행동을 따라 해주세요. 그래서 난 선생님이 날 열심히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안심하죠.
- ▶ 선생님은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것과 내가 놀이하는 걸 보면서 내 행동을 묘사해 주세요.
- ▶ 선생님은 내 몸짓, 표정, 말소리만 듣고도 내가 뭘 필요로 하는지 알아야.



공감하기

- ▶ 선생님은 들어주고, 얘기하고, 웃고, 안아주고, 노래해요.
- ▶ 놀이할 때는 내 뜻대로 하게 해 주세요.
- ▶ 내 느낌, 선생님의 느낌이 무엇인지 이름을 알려주세요.
“기쁘요”, “속상해요”, “놀랐어요?” 등



한계설정

- ▶ 선생님은 먼저 책을 보다가 다음엔 낮잠을 자자고 순서를 안내해 주세요.
- ▶ 내가 친구를 때리거나 깨물면 선생님이 즉시 막아요.



대안제시

- ▶ 선생님은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다음에 무엇을 할 건지 미리 알려주세요.
- ▶ 필요할 때는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물건(애착 인형 등)을 주세요.
- ▶ 내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미리 알려주세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해보자”
- ▶ 어떨 땐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다리기

- ▶ 선생님은 나에게 말하고 나서 내가 생각하고 따라 할 수 있도록 잠깐 기다려주세요.
- ▶ 내 생각 주머니가 커질 수 있도록 지켜봐 주세요.
- ▶ 때로는 내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문제해결 놀이도 해요.
“사과를 먹으려니 집어먹을 도구가 없네. 사과를 무엇으로 찍어 먹지?”
“포크요!”



나는요, 이런 우리 선생님이 정말 정말 좋아요!!!

3

유아의 문제행동 지원을 위한 상호작용 사례

1 친구를 따돌려요 ①

행동 관찰

행동의
패턴과 원인을
살펴보아요

[관계 욕구]

지수는 친구를 만드는 것이 친하게 지내는 친구와 따돌리는 친구를 구별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어떤 친구는 가까이 하고, 어떤 친구를 멀리할 거예요. 그게 친구를 사귀는 거죠.’

[요구하기]

‘친구는 내가 하라는 것만 해야 해요. 내 말을 안 들으면, 다른 친구들에게 그 친구와 같이 놀지 말라고 할 거예요.’

환경조정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환경을 조정해요

[경청하기]

“성희가 네 말을 안 들어서 같이 못 놀게 하는 거야? 어떤 말을 안 들었니?”

[공감하기]

“지수는 친구들이 지수 말을 잘 들으면 좋겠구나.”

[대안제시]

“지수야, 지선이에게 수저 좀 건네줄래?”

“지수랑 지선이가 함께 물감을 칠하고 있네. 무지개 같은데? 멋지다”

“지수야, 성희에게 이 책 좀 가져다줄래? 고맙다”

사회정서 기술 지원

대안 행동을
안내하고
격려해주세요

[경청하기]

“성희가 지수랑 소정이가 인형놀이 하는데 같이 하고 싶었구나? 인형놀이가 재미있어 보였어? 그렇구나.”

[공감하기]

“지수랑 소정이가 놀이에 안 끼워줘서 슬펐구나? 선생님도 그럴 땐 속상할 것 같아”

[한계설정]

“지수야, 친구가 언제나 네 말을 잘 들어야 하는 건 아니야. 친구는 어떨 땐 내 말을 잘 들어주지만, 또 어떨 땐 내 말을 잘 듣지 않기도 한단다.”

[대안제시]

“애들아, 인형 목욕시켜주는 거야? 그럼 여기 향기가 아주 좋은 샴푸가 있는데 이걸 써볼래? 성희가 이 샴푸를 사 왔다. 향기를 맡아 봐”



문제행동을 지원할 때 이런 점도 생각해 보세요

유아 입장에서 교사의 지도가 잘 이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또래와 의사소통하려는 시도를 알아차리고 긍정적으로 반응해주세요.

경청하기

“성희가 친구들에게 인형 놀이 함께 하자고 말했구나. 친구에게 같이 하자고 한 거 정말 잘했어”

- 유아가 지켜야 할 것은 요청하기 보다는 직접 요구하세요. 요청하면 유아는 자기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계설정

“지수야, 함께 정리하는 거 도와줄래?” 가 아니라
“지수야, 이제 다 같이 정리할 시간이야. 친구들과 같이 정리하자”

- 유아에게 한계를 설정할 때는 유아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세요.

한계설정

“친구들 눈에 모래가 들어가지 않게 모래는 낮은 곳에서만 만지자”.
“복채는 여기 복채 사진 있는 선반에 놓자. 그러면 다른 친구들도 쉽게 찾을 수 있지?”

- 유아들이 함께 사용하기, 순서 지키기 등 또래와 상호작용을 시도해볼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마련해주세요.

대안제시

“너희 셋이 함께 인형 한 개에 인형 옷 3개를 입히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래, 한 사람이 옷 한 가지씩 입히면 되겠구나.”



일과 내내 또래 간 상호작용을 촉진 시켜 주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등원 시간에 유아들이 또래와 함께 교류하도록 하기 위해 교사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요?
(둘씩 짝지어서 그날의 짝꿍이 되도록 함)

- 급·간식 시간에 유아들은 어떤 테이블에, 의자는 어떻게 놓고 앉나요?
유아들이 식사할 때 서로 서로 마주보며 이야기를 나누기가 용이하게 배치되어 있나요?
- 급·간식 시간 전, 시간 중, 시간 후에 또래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해 교사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요?
- 놀이 시간에 유아들이 친구들이 하는 놀이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놀이하도록 하기 위해 교사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요?
- 유아들이 또래와 상호작용하거나 함께 놀이하도록 하기 위해 교사는 어떤 놀이자료를 준비하였나요? (뉴스 촬영 놀이를 위해 종이상자 촬영 카메라를 5대 준비)
혹은 놀이자료를 어떻게 배치하고 있나요? (촬영 카메라는 한 유아가 들고, 다른 유아는 카메라를 들고 말하기)
- 바깥놀이 시간에 유아들이 또래와 함께 놀도록 하기 위해 교사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요?



유아가 친구의 감정과 자신의 감정을 알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 유아들이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고, 이름을 붙여주세요

경청하기 “친구들이 성희와 함께 놀아주지 않아서 슬프구나?”

공감하기 “성희가 혼자 있어서 선생님도 슬퍼”

- 유아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 물어 보세요.

경청하기 “왜 친구들하고 같이 놀지 않니? 그랬구나, 그래서 성희 기분이 지금 어때?”

한계설정 “친구들이 놀이를 못하게 하니깐 때려주고 싶구나? 그래, 그런 기분이 들 수 있어. 하지만 친구들을 때리면 어떻게 될까?”

- 친구가 유아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알려주어 친구의 감정을 인식하게 도와주세요.

공감하기 “소정아, 지수야, 성희가 너희들과 함께 놀고 싶은데 놀지 못하게 해서 슬프대. 성희가 슬퍼하니 선생님도 슬프네.”

한계설정 “소정아, 지수야, 다른 친구들하고도 같이 놀면 좋겠다. 무슨 놀이를 하면 다 같이 놀 수 있을까?”

- 감정, 느낌에 관한 어휘를 사용하는 활동을 하세요.

경청하기 “주사위에 이런 표정이 나왔네. 어떨 때 기분이 이렇지? 그렇구나, 친구가 나랑 놀려고 하지 않으면 슬프구나.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

- 교실 상황에 대해 교사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말해주세요.

공감하기 “너희들이 친구와 함께 놀려고 하지 않으니까 선생님이 속상해. 선생님은 우리 반 친구들이 모두 함께 잘 놀았으면 좋겠어.”

- 친구들이 서로 갈등을 빚을 때 유아가 느끼는 좌절감 등에 이름을 붙여주세요.

경청하기 “소정이는 그래서 기분이 나빴구나, 지수는 소정이가 인형 주머니를 찢어서 화가 났니?”

- 유아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보도록 지원해주세요.

공감하기 “인형 주머니가 찢어져서 지수가 속상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대안제시 “그렇구나, 선생님이 실로 좀 꿰매어 볼까? 그런 방법이 있구나. 예쁘게 잘 되어야 할텐데. 선생님 마음이 조마조마한 걸”

2 친구를 따돌려요 ②

행동 관찰

행동의
패턴과 원인을
살펴보아요

[과제 회피하기]

재미있는 놀이가 없네요. 친구 두 명과 함께 여기 저기 다니면서 놀이를 찾아보는 거예요. 민철이가 따라다니는 거 싫어요. 못 하게 할 거예요.

[자극 추구하기]

우리가 친구를 약 올려서 친구가 울면 재미있어요. 그런 게 재미있게 놀이 하는 거죠.

환경조정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환경을 조정해요

[경청하기]

“경진아와 철민이가 민철이를 놀렸구나. 정말 속상했겠다”

[공감하기]

“경진아, 철민아, 친구는 아껴주는 거야. 친구가 울면 선생님도 슬프단다. 민철이도 많이 속상했을 것 같아.”

[한계설정]

“친구에게 멋진 말, 예쁜 말로 이야기하자”

사회정서 기술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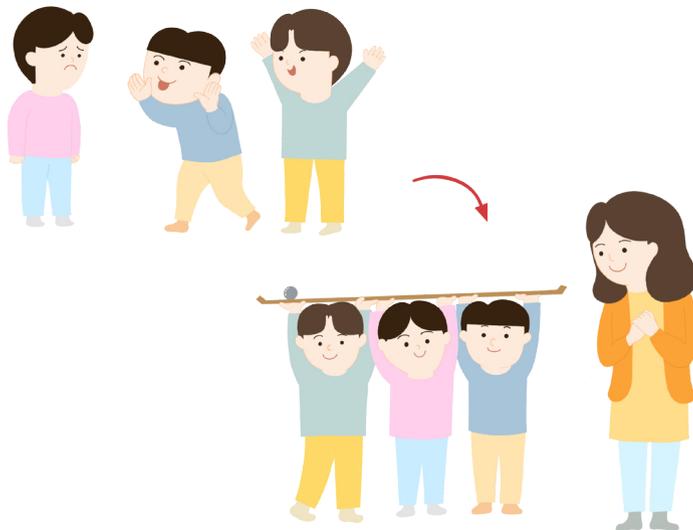
대안 행동을
안내하고
격려해주세요

[대안제시]

“경진이, 철민이, 민철이 셋이서 청팀이 되자. 이 널판지 쟁반을 셋이 들고 움직여서 여기 있는 조그만 구멍으로 구슬이 빠지게 하는 거야. 셋이 힘을 모아서 해보자!”

[기다리기]

“경진이가 쟁반 이쪽을 들어서 민철이하고 구슬이 잘 빠지게 했구나. 좋은 생각인데?”





문제행동을 지원할 때 이런 점도 생각해 보세요

유아가 심심하다고 느끼는 대신 놀이에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세요.

- 유아가 분산 행동을 할 때는 분위기나 상황을 전환시켜 보세요. 요구에 맞는 놀이나 활동을 하도록 지원해주면 갈등이나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대안 제시 (일과 시간 조정) “오늘은 민철이가 힘이 넘치는구나. 좋아, 옷 입고 밖에 나가 놀자”

- 유아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간단하게 제시합니다.

한계 설정 “민철아, 여기 네 자리에 앉아 있거나 저기에서 조용히 퍼즐놀이를 할 수도 있어. 네가 정해봐. 뭘 할래?”, “여기 줄에 서서 네 순서를 기다릴래? 아니면 다른 걸 찾아볼래?”

- 때로는 ‘논리적 귀결’을 경험하면서 깨닫게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어떤 행동이든 그에 따른 결과가 따라온다는 점을 직접 경험해보게 돕는 것입니다.

논리적 귀결 “네가 아까 규민이 안 보여준다고 네가 만든 조각상을 감춰놨아. 이제 집에 갈 시간인데 그걸 찾을 수가 없네. 집에는 그냥 가야겠다.”

- 평소에 원인과 결과를 간단히 묘사해 주세요. 원인과 결과를 안내해 주면, 유아는 문제가 있고 그걸 해결하면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아로 하여금 주변의 환경에 관심과 흥미를 갖고 탐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논리적 귀결 “수진이가 바지에 물감을 묻혔구나. 어떻게 하면 바지에 묻은 물감을 지울 수 있을까? 그래, 여기 이 물티슈로 한번 닦아볼까?”

기다리기 “수진이가 물티슈로 바지의 얼룩을 닦아내었네. 수진이가 바지에 물감 묻었는데 울지 않고 침착하게 닦으니까 물감이 지워졌다, 그치? 수진이 정말 훌륭해”

3 작품을 무너뜨려요 ①

행동 관찰

행동의
패턴과 원인을
살펴보아요

[과제 회피하기]

미술 놀이 싫어요. 친구들이 열심히 하는 것도 싫어요. 다른 걸 하고 싶은데, 뭘 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자극 추구하기]

작품을 넘어뜨려서 친구들이 소리를 지르고 몰려오면 선생님과 친구들의 관심을 받아요. 그건 정말 재미있어요.

환경조정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환경을 조정해요

[공감하기]

“철수가 네 작품을 무너뜨려서 정말 속상하겠다. 열심히 만든 건데. 선생님도 멋진 작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무너져서 너무 속상하네.”

[한계설정]

“다음에는 작품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저쪽에 두면 어떨까?”

[대안제시]

“철수야 친구들이 속상하고 화가 났네. 친구들에게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

사회정서 기술 지원

대안 행동을
안내하고
격려해주세요

[경청하기]

“철수야, 미술 놀이 하기 싫어? 재미있는 게 뭐가 있을지 생각해 볼까?”

[공감하기]

“철수는 미술 놀이 대신 책 읽기를 하고 싶구나.”

[대안제시]

“그러면 읽고 싶은 책을 골라서 가져올래?”

[한계설정]

“철수야, 친구들이 열심히 작품을 만들었으니까 친구 작품을 소중히 여겨줘야지?”





문제행동을 지원할 때 이런 점도 생각해 보세요

유아의 문제행동을 지적할 때 간혹 부정적인 감정에 압도된다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렇게 해보세요.

- 유아의 행동을 지적할 때 유아의 '인성'을 비난하는 대신 '행동'만 지적하세요.

공감하기

“민철이는 어쩔 그렇게 생각이 모자르니?”

→ “민철이가 규민이 트럭을 확 잡아채서 규민이가 화가 났대”

- 교사가 느끼는 감정을 알려줄 때는 부정적인 감정만 전달하기보다 교사가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었는지 설명해주세요.

공감하기

“너희 둘이 친구들 작품을 무너뜨리고 가서 선생님이 화가 났어” “네가 친구 작품을 일부러 치고 가서 선생님이 화가 났어.”

→ “너희 둘이 친구들 작품을 무너뜨리고 가서 선생님이 화가 났어. 그래서 깊은숨을 쉬고 마음을 조용히 가라 앉혔단다. 그랬더니 마음이 차분해졌어.”

- 대신, 유아의 행동을 칭찬할 때는 구체적으로 묘사해 주세요.

기다리기

“규민이 잘했어. 멋져”

→ “규민이가 친구들과 미끄럼틀 탈 때 ‘차례 지켜’ 라고 말했구나. 덕분에 친구들 모두 안전하게 미끄럼틀을 탔네. 잘했어. 고마워”



4 작품을 무너뜨려요 ②

행동 관찰

행동의
패턴과 원인을
살펴보아요

[관계 욕구]

친구랑 같이 놀고 싶은데 친구의 관심을 어떻게 끄는 게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작품을 장난으로 무너뜨리면 친구는 나에게 소리를 지르며 반응해요. 이렇게 하는 게 같이 노는 건가요? 이게 노는 건데 친구는 왜 화를 내고 나를 때리려고 할까요?

[요구하기]

친구가 먼저 내 걸 건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났죠. 난 더 세게 건드렸어요. 그래서 친구 작품이 무너졌어요.

환경조정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환경을 조정해요

[경청하기]

“규민이가 네 작품을 그렇게 무너뜨렸어?”

[공감하기]

“친구가 작품을 무너뜨려서 정말 화가 났겠구나. 그래도 친구 때리지 않고 잘 참았어.”

[한계설정]

(또래 간 인식 지원) “애들아, 민철이가 블록을 높이 쌓고 있으니까, 실수로 넘어뜨리지 않게 조심해”

사회정서 기술 지원

대안 행동을
안내하고
격려해주세요

[한계설정]

“친구 작품을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하자”

[대안제시]

“규민아, 친구가 네가 만든 작품을 건드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래, ‘친구야, 조심해’라고 말해야지”

[기다리기]

“규민이하고 철수하고 서로 사과하고 풀었구나. 잘 했어. 먼저 사과를 하는 건 용기가 필요한 일이야. 선생님은 정말 규민이와 철수가 자랑스럽다”





문제행동을 지원할 때 이런 점도 생각해 보세요

[한계설정]과 [대안제시]의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계를 설정할 때는 평소 익힌 교실 규칙을 사용하세요. 교실 규칙은 유아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최소화 하는것이 좋습니다.

한계설정 (교실 규칙) “교실에서는 조용히 말하자. 대신 바깥 놀이할 때는 크게 말해도 돼”
 “친구가 만든 작품은 소중히 다루자.”

- 부정문보다는 긍정문으로 말해주세요.

한계설정 “교실 바닥에 블록 조각 놓아두면 안 되지?”
 → “블록 조각을 바닥에 두면 밟고 넘어질 수 있으니 블록을 제자리에 정리하자.”

한계설정 “친구 작품을 만질 때 툭툭 만지지 마.” → “친구 작품은 눈으로 보자.”

- 유아의 기분에 먼저 공감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한계설정 “규민아 선생님이 못 하게 막아서 힘들었지? 친구 작품은 소중히 다루자.”

- 유아는 때로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무엇을 택해야 할지 어려움을 느낍니다. 간단한 선택지를 주면 유아는 자신이 선택했다는 점에 만족감을 느낄 수 있고, 이런 과정은 불필요한 힘겨루기를 예방해주시기도 합니다.

대안제시 “이제 옷 입어” → “바지 먼저 입을래? 아니면 윗도리 먼저 입을래?”

대안제시 “규민이 채소 더 먹어보자” → “규민아, 여기 이 당근 더 먹어볼래, 아니면 호박 더 먹어볼래? 빨간색? 아니면 초록색?”

- 유아가 즉시 행동할 것을 기대하기 보다는 조금 기다려 주도록 합니다.

한계설정 “모두 자리에 앉지 않으면 책 안 읽어줄 거예요”
 → “(먼저) 우리 모두 조용하게 앉고 나면,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책 읽기를 시작할 거예요”

대안제시 “이제 치울 시간이다” → “긴 바늘이 6에 가면 치울 시간이예요.”

- 교사가 대신해주기 보다는 유아가 스스로 해볼 수 있게 격려해주세요.

대안제시 “이건 어려워서 네가 못 해. 저리 가 봐. 선생님이 해줄게”
 → “선생님이 여기있을 테니,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으며 와서 물어봐. 그러면 선생님이 도와줄게.”

“선생님한테 징징대지만 말고 친구들에게 가서 같이 놀자고 해 봐”

→ “선생님이 네 옆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가서 같이 놀자고 해 봐.
 선생님이 잘 보고 있을게.”



문제행동을 지원할 때 이런 점도 생각해 보세요

평소 『문제해결 방법』을 안내하여 또래 간 다툼이 있을 때 쓸 수 있게 지원해주세요

유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 및 갈등

- 놀잇감이나 자료를 함께 쓰는 문제
- 놀이에서 소외되는 문제
- 도움을 필요로 하는 문제
- 행위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하는 문제
- 차례를 지키는 문제
- 친구에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문제
- 친구에게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문제
- 과제나 활동을 완수하기 어려운 문제
- 또래 집단과 보조를 맞추기 어려운 문제
- 필요한 재료를 구할 수 없는 문제
- 활동 중에 무엇을 해야 할지 또는 다음에 무엇을 하는 건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
- 친구가 놀리거나 별명을 부르는 문제

유아들이 고려해볼 수 있는 문제해결 방법

- 놀잇감이나 자료를 함께 사용해요
- 재료를 나누어 사용해요.
- 선생님에게 도와달라고 말해요.
- 친구에게 하지 말라고 말해요.
- 차례를 지켜요.
- 친구가 놀리는 것을 무시해요.
- 서로 교환해요.

『문제해결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다음의 단계별로 상호작용 해보세요.

단계	교사의 역할	상호작용
1. 흥분한 감정을 가라앉혀요.	유아들이 흥분된 감정을 조절하도록 지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민이가 화를 참으려고 큰 숨을 쉬고 있구나.” “규민이가 약이 올랐구나.” “소희가 슬퍼서 울고 있네.”
2. 문제가 뭔가요?	유아들의 주장을 중립적인 표현으로 정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너희 둘이 모두 이 토치를 먼저 쓰고 싶은 거지?” “너는 소희와 놀고 싶었는데, 소희는 규민이랑 놀고 싶어 했구나.” “코트를 입는데 지퍼가 잘 안 올라갔구나.”
3. 해결책이 뭘지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요.	유아가 해결책을 생각해 내도록 격려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 “기다리는 동안 타이머를 사용해볼까?” “우리가 재밌게 놀 새로운 장소를 찾아볼 수도 있어. 찾아볼까?”
4. 이 방법을 썼을 때 안전한가요? 공정한가요?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유아들이 생각해 낸 해결책들을 하나씩 평가해보도록 지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정하려면) 타이머를 몇 분 동안 켜놓는 게 좋을까?” “친구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해보는 건 정말 멋진 해결책인데?” “차례를 지켜 미끄럼틀에서 내려오는 건 모두에게 안전한 방법이네”
5. 생각한 방법을 써 봐요.	유아들이 생각한 방법을 시도해보도록 지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로운 놀이 장소를 찾아보기로 했잖아. 그럼 이제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곳을 찾아볼까?” “친구에게 부탁하는 방법을 써보기로 했지? 그러면 ‘친구야, 이거 여기 놓아도 될까?’ 라고 물어보자” “이것 저것 다 해봐도 친구가 싫다고 하네. 그러면 이제는 차례 지키기를 할 수밖에 없겠다.”
6. 후속 지원을 해요.	유아를 격려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민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네! 그네를 차례대로 타기로 했구나. 정말 잘 했어.” “소희는 문제를 잘 해결하는 친구네. 소희가 다른 의자를 찾아보자고 했잖아. 이제 우리 모두 의자에 앉을 수 있게 되었어. 고마워.”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철수가 아직 짝을 찾지 못했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이는 길을 묻는 손님입니다.
영유아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기 삶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세요.



‘영유아 권리존중 상호작용의 비법’과 함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목록으로,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직원 자료

- 2023년 영유아 권리존중 상호작용 ‘경공한대기’ 리플릿 및 포스터
- 2023년 어린이집 보육교사 권리보호 핸드북
- 2023년 보육교사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응 가이드
- 2021년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
- 2021년 어린이집 윤리강령 포스터
- 2021년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 활용 영상(기관편 1, 2)*

부모 자료

- 2023년 영유아 권리존중 상호작용 ‘경공한대기’ 포스터
- 2022년 초보부모를 위한 어린이집 가이드북
- 2021년 자녀 권리존중 양육 리플릿 및 포스터 5종
- 2021년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 활용 영상(가정편 1, 2)*
- 2019년 자녀 권리존중 ‘아이마음 헤아리기’**
- 2019년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이론편, 사례편)**
- 2018년 우리 아이를 위한 좋은 교사, 좋은 부모 되기**
- 2017년 부모를 위한 영유아 생활지도
- 2016년 또 하나의 집, 어린이집 생활이야기
- 2014년 자녀의 인격 존중, 부모노릇의 첫걸음

 한국보육진흥원(www.kcpi.or.kr) > 알림마당 > 발간물 > 기타발간물

*  한국보육진흥원 온라인교육(www.kcpi.or.kr/edu) > 온라인 교육과정 > 기타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https://lms.educare.or.kr/>) > 개설강좌 > 부모용

기획·총괄

이원선 (한국보육진흥원 정책기획본부장)
이혜진 (한국보육진흥원 정책기획부장)
정영혜 (한국보육진흥원 정책기획부 과장)
김진솔 (한국보육진흥원 정책기획부 주임)

집필진

이완정 (인하대학교 아동심리학과 교수)
강정원 (한국성서대학교 영유아보육학과 교수)

현장 자문

송민숙 (화성2삼성어린이집 원장)
안수정 (국회제2어린이집 교사)

영유아 권리존중 상호작용의 비법

발행일 2023년 12월
발행처 한국보육진흥원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345, 주연빌딩 3~6층
www.kcpi.or.kr, 02-6901-0100
일러스트 허은영
제작·인쇄 디자인 나무 032-327-6109



본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한국보육진흥원에 귀속되며, 사전 승인 없이 본문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ISBN 978-89-98842-77-2